

월요논단



현 해 남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제주에서 재배되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월동채소가 매년 뿌리혹병으로 고생한다. 뿌리썩음병도 많다. 토양병이 발생하는 원리를 잘 이해해서 조금씩 줄여보자.

월동채소 토양병은 미리 막는 방법과 죽이는 방법이 있다. 막는 방법은 약취퇴비 사용을 줄이는 것이고, 죽이는 방법은 농약이다.

토양병은 약취 퇴비에서 많이 온다. 무기질비료는 토양병이 있을 수 없다. 유기질비료도 기름을 짠 유박이어서 토양병이 오염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 반면에 퇴비는 토

월동채소 뿌리혹병 줄이자

양병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퇴비는 가축 '똥'을 5~6개월 정도의 부숙과정을 거치면서 토양병을 사멸시킨다. 흙냄새가 난다면 좋은 퇴비이고 토양병균이 없다는 얘기다. 약취가 난다면 토양병균이 있다는 증거다. 퇴비에서 약취가 난다면 퇴비가 아니라 온갖 병균이 있는 '똥'이다. 토양 병을 퍼뜨리는 범인이다.

2012년부터 퇴비 비료공정규격에 대장균, 살모넬라 불검출 규정을 만들었다. 부숙이 완전히 진행된 흙냄새 퇴비만 판매하도록 부숙도도 규정하고 있다. 퇴비에 병균을 없애려는 규정들이다. 그러나 실제 판매되는 퇴비는 약취 퇴비가 너무 많다. 가을이 되면 월동채소가 재배되는 서부지역 농경지에서 약취를 풍기는 경우가 많다. 약취 퇴비에서 나는 냄새다. 토양병균이

내뿜는 악취다. 약취 퇴비에 비닐만 씌워 놓아도 병균이 많이 죽는다. 비닐을 씌워 몇 달만 지나도 저질로 부숙 되면서 병균이 없는 흙냄새 퇴비로 변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는 정식 전에 종자 침치 소독 처리를 권장하고 있다. 애초에 종자에서 오는 병균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석회고토, 패화석처럼 산성토양 개량제를 잘 주는 것도 예방 방법의 하나다. 뿌리혹병은 중성 토양에서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원예비료만 잘 선택해도 뿌리혹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비료는 계속 발전해서 일반 원예비료에 살균 작용이 있는 50~150um 미세 황을 혼합한 비료들이 판매된다. 쉘파원에플러스, 뿌리조은황플러스 등이다.

뿌리혹병 방제 농약은 후루설과 마이드(흑안나), 후루아지남 분제

(후론사이드) 등 여러 약제가 있지만 이미 발병한 뿌리혹병을 방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상부 병균은 농약을 골고루 살포해서 죽일 수 있다. 토양 병균은 농약이 닿지 못하는 토양 공극 사이로 숨어들어 숨어 번식하기 쉽다.

월동채소 뿌리혹병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도 적극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몇 년 전에 중단된 '뿌리혹병 방제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뿌리혹병은 한자로 근두암종(根頭癰腫)이다. 뿌리에 생기는 암이라는 뜻이다. 사람에게 생길 암도 완치가 어렵다. 월동채소에 생기는 암은 치료가 더 어렵다.

월동채소에 생긴 암 같은 뿌리혹병. 방제는 종자소독, 흙냄새 퇴비, 살균작용 원예복비, 지자체의 농약 지원사업이 힘을 합치면 조금씩 줄어든 것이다.

뉴스-in

제주, 사회연대경제로 지역문제 함께 푼다

5일 기념주간 행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가치의 연결, 연대의 시작'을 주제로 2026년 제주 사회연대경제 기념주간 행사를 개최.

이번 행사에는 위성곤 지사,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내 사회연대경제 조직 중 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3명과 단체 3곳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으며 로컬과 청년, 환경, 돌봄, 연대 등 5개 분야 26개 마당을 운영.

위성곤 지사는 “제주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더욱 튼튼히 발전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이들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첫 고객이 되겠다”고 강조. 오소범지자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담 여전

○…항공사들이 국내선 항공권을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를 10월에도 9월과 같은 편도 2만 900원으로 결정하기 시작하면서 관광객과 제주도민들의 항공 비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 4월 7700원이었던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6월에는 사상 최고인 3만5200원까지 치솟았고, 이후 유가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7월 2만4200원, 8월에는 1만6500원까지 서서히 떨어졌지만 9월부터 다시 돌봄, 연대 등 5개 분야 26개 마당을 운영.

항공기 이용객들은 “제주 기점 국내선 항공좌석이 지난해보다 줄면서 항공료가 오른 상황에서 추가로 1인 기준 양복 4만원의 유류할증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언급. 문미숙지자

사설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 끝까지 사활 걸어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을 4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을 이전하는 대혁신이다. 우선 법무부, 성평등부 등은 2027년 상반기에 세종시로 이전한다.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으로는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한다.

제주도는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제주는 전국 말 사육두수의 54.7%, 국내산 경주마 생산의 91.5%를 차지하는 등 말 산업 기반을 보유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2014년 전국 최초로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된 이래 말 산업은 경마·생산·관광·치유·교육이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했다. 말 산업 특구 지정 이후 정부

차지하고 있다. 마사회가 제주로 이전하면 말 산업의 핵심 기능이 집약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기관도 마사회여서 기대가 크다. 특히 마사회는 연간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와 지난해 6조 4240억 원의 매출을 올려 공공기관 이전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

하지만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은 기대만큼 낙관적이지 않다. 마사회를 품기 위한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치열해서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북도, 영천시, 경기도 시흥시·화성시 등도 유치전에 가세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 만큼 제주도는 마사회 제주 이전의 당위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적극 설파하는 등 유치를 사활을 걸어야 한다.

항공좌석난, 슬롯 타령만 해선 안 된다

제주지역 국내선 항공좌석난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제주도가 정부와 항공사에 슬롯 확대와 증편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

지난 3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위성곤 제주지사는 항공좌석난 대책을 묻는 양경호 의원의 질문에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경호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반납한 슬롯이 저비용항공사(LCC)에 배분되면서 소형 항공기 운항 비중이 높아져 공급석이 줄었다며 대형 항공기 투입을 제안했다. 이에 위 지사는 대형기는 정비·수리 시간이 길어 전체 운항 횟수가 감소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슬롯 확대가 쉽지 않은 제주공항의 현실을 감안하면 대형기 투입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189석 규모의 B737 대신 272~284석 규모의 A330을 투입하면 동일한 슬롯에서도 한 편당 80석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운항 편수가 아니라 하루 전체 공급석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느냐다.

물론 항공사에 대형기 투입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만은 없다. 항공사 역시 수익성과 기재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항공유 면세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정부와 협의하고, 항공사도 도민 이동권 확보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정된 슬롯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제주도와 항공사가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례와 같이 분묘 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원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분묘의 원고자가 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원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분묘소재지 및 주소	소재지	주소	비고
제주시 구좌읍 한림리 1-123 & 1-124		2기	

2. 개장사유 : 토지정리
3. 개장방법
(가)유언분묘-공고기간 중 원고자 확인시 합의개장
(나)무언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불타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영지공원 불타당) ☎ 064710-6628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5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공고일 및 문의처
· 공고일 : 제주특별자치도(수산정책과) ☎ 064710-3242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인복지과 ☎ 064728-2568
7. 신고 시 구비서류
· 신고제원고자는 사전에 분묘유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지역의 관과 중량(세금)을 증명서, 제원본, 족보, 기타 증명서류 등불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방내로 세로이 변경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락로 발견되는 유언분묘는 이 공고로 적용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6년 9월 7일
위 공고인 : 제주특별자치도(수산정책과)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상속하는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도특이**

제주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

분 할 합 병 공 고

2026년 9월 4일 각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주은전기공사 (이하"갑")의 전기공사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주식회사 경민이앤씨(이하"을")와 분할 합병("갑"의 전기공사사업부분의 관리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개제일로부터 1개월내로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주제위에서도 동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갑 주식회사 주은전기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우로11길 16, 104호(연동) 사내이사 **김 정 호**
을 주식회사 경민이앤씨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08-1, 3층 대표이사 **최 현 주**